



선령 40년 된 고흥 외나로도 유람선

40년 된 유람선 떠다니는 ‘공포의 바다’

선령 제한 없어 외나로도 유람선 여전히 운항 전남 노후 유람선 수두룩...해경은 형식적 점검 홍도 바캉스호, 관리편의 위해 구명조끼 비닐에 넣어 보관 ‘아찔’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에서 출항, 1시간 가량 인근 나로도 해상을 둘러볼 수 있는 유람선은 건조된 지 40년된 배로, 광주·전남 지역 ‘최고령’ 선박이다. 현행 해운법상 유람선은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박 선령 기준이 없어 해경이 승인하면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다.

가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해경은 여객선과 달리, 운항관리규정 승인·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등 점검 기준이 없는 점을 들어 출항 전 몇 분 동안의 ‘육안 점검’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승객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인 실정이다. 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목포·여수 해경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유람선은 목포 12척, 여수 24척 등 모두 36척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5척의 내수면 유람선도 운항중이다.

배였다. 여수해경이 관리하는 유람선도 비슷해 24척 중 11척이 20년이 넘는 오래된 선박으로 파악됐다. 고흥 외나로도 일대를 도는 유람선은 건조된 지 4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 처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광주·전남지역 건물·토지주 12명을 처벌하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는 지적이 많다. 사고가 난 홍도바캉스만 하더라도 수량 외 교체 주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때문에 구명조끼가 만들어 지 20년이 넘는데도, 관리 편의를 위해 비닐에 넣어둔 채 보관된 것도 적지 않았다. 긴급 상황 시 구명조끼를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해경 점검 대상에는 제외됐었고 몇 분 만의 육안 점검으로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채 출항했었다.

열악한 유람선 실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람선을 속 번 선박 안전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계류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아찔한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너무 무서운 세상

광주...사귀던 여성이 무시한다며 일가족 3명 살해범 영장 진도...파렴치한 어른들, 지적수준 낮은 여고생 상습 성폭행

사귀던 여성이 무시한다 이유로 일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과 지적 능력이 또래보다 낮은 여고생을 꼬여 성폭행을 일삼은 버스기사 등 인면수심 파렴치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에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꽃까지 사갔는데 당장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나를 무시하자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사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모(34)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D아파트에서 권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차례로 집에 들어온 권씨의 어머니 채모(68)씨, 딸 전모(14)양 등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채씨는 딸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고 학원에서 돌아온 전양은 이날 집에 들어설 때 수상한 김씨를 알아챘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앞서 진도경찰은 지적수준이 낮은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버스기사 조모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구속했다. 50~60대 남성인 조씨 등 3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A(여·19)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조씨 등은 A양이 지적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고 버스 안이나 한적한 곳에서 A양에게 몸을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 주민인 조씨 등 3명은 서로 안면이 있으며 돈이나 과자를 주고서 A양을 꼬여내는 등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

세월호 선장 등 3명 유기치사·상 혐의 추가

광주지검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 혐의 무죄 대비한 듯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 선장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을 받아 이뤄진 듯한 모양새지만 핵심 쟁점인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때를 대비한 방안이라는 해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장판사 임정업)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비롯, 이준석 선장의 사고 당시 직접 의무와 살인의 고의 등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해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재익 광주지검 강력부장이 이날 밝힌 공소장 변경 내용은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게 골자다. 여기에 살인의 착수 시점을 구체화하는 한편, 피해자 및 희생자, 실종자 10명까지도 모두 실명으로 표기한 피해자 일람표 등도 포함했

다.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공소 사실 중 명확하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과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따라 반영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애초 이 선장의 경우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돼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애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심증이 생겨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법조계 안팎에서 살인죄 무죄에 따른 ‘포석’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타수 조모(56)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반복된 ‘선내 대기 방송’과 관련, 이준석 선장이 영업부 직원의 질문을 받고 “승객들을 침실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타구 여제’ 현정화 음주운전 사고...혈중 알코올 무려 0.201%

“타구 여제” 현정화(여·45) 한국마사회 타구단 감독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입건. ○...1일 경기 분당경찰에 따르면 현 감독은 이날 새벽 0시 5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마동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모(5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는 것. ○...경찰에서 현 감독은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이후 최근 위촉됐던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에서 사퇴.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 ~ 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4억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